

2016. WINTER. 창간호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창간사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소식지 창간에 즈음하여

돌아보기

한눈에 보는 2016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감사합니다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대학생 서포터즈

인터뷰

조사과 탐사관의 하루
‘가장 기억에 남는 유해발굴 작전’

유가족 찾기

전국을 누비는 유가족관리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영웅

계획

2017년 유해발굴감식단 발굴계획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소식지 창간에 즈음하여!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즐겁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길 바라며, 2017년 정유년(丁酉年)에도 개인과 가정,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이름모를 산야에 쓸쓸히 묻혀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한 호국보훈 사업입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난 2000년 4월, '6·25 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육군본부에서 한시적으로 유해발굴을 시작한 지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어 지금까지 9,550여 명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이 가운데 118분의 신원을 확인하여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유해발굴사업은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외롭게 묻혀 있는 호국용사들이 한 분도 남지 않을 때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호국보훈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자료 연구의 제한, 아파트 건축, 도로 건설 등 국토 개발로 인한 전투현장 훼손과 지형의 변화, 직계 유가족과 친인척(친·외가 8촌 이내)을 확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일의 어려움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어려움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유가족 DNA 시료채취가 꼭 필요합니다. 유해의 유전자 분석에 필요한 유가족 DNA 시료는 35,990여 개를 확보하였으나 확인해야 할 미수습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방부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해발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 유가족분들과 유관기관 담당자 그리고 유해발굴사업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유해발굴사업 추진상황을 알려드리고자 단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라는 이름의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에는 2016년 한 해 유해발굴 성과, 2017년 유해발굴 계획, 신원확인 및 유가족 찾기 노력과 실적,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 영웅들의 이야기 등이 실리게 되며, 이를 통해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궁금했거나 발전적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소식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읽을거리가 풍성한 소식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낸 호국 영웅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대령 이학기

국민의 깊은 공감을 얻는 소식지가 되기를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낸 호국 영웅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사명감으로 아직도 이름모를 산야에 쓸쓸히 묻혀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학기 유해발굴감식단장을 비롯한 군 장병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그동안의 성과를 치하합니다.

더욱이 단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유해발굴감식단의 소식지「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를 처음 발간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유해발굴감식단의 앞날에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장 김인호

66

유해발굴감식단의 소식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를 처음 발간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99



숫자로 보는 2016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발굴기간 3-11

2016. 3.14-11.11

투입인력

일 평균 - 1,000여 명

연 평균 - 100,000여 명

총 투입시간

약 110만 시간

140일 X 1,000명 X 8시간



발굴지역

전투 격전지
경기 파주, 강원 인제,
경북 포항 등

83 개 지역



발굴 국군전사자

500 여 위(총 9,550여 위)



신원확인

9명(전체 118명)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이 어렵습니다

1 / 170

170여 개 지점 굴토시
전사자 유해 1구 발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전사자는
발굴 국군전사자의
약 1.2%

유가족 DNA 시료채취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유가족 DNA 시료

27%

하지만 유가족 DNA
시료채취 숫자는

35,990건에
불과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2016 유해발굴사업



2.18. 유해발굴사업 홍보 자문위원 위촉행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자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PD, 대학 교수 등 홍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3.11. 2016년 유해발굴 출정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전반기 유해발굴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가졌다.



3.16.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 위촉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사업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한국 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성신여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3.31. 중국군 유해 인도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한 때 적으로 싸웠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5년 발굴된 중국군 유해 36구를 중국으로 송환했다.



4.21. 호국영웅 귀환 행사- 故 임병근 일병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故 임병근 일병의 신원이 확인되어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4.28. 한·미 전사자 상호 봉환 행사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5위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미군 유해 2위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호 봉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5.11. 흥천 유해발굴현장

흥천에서 진행된 유해발굴현장에서 국유단 발굴팀장과 발굴병들이 호국영웅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5.12. 원주지역 참전용사 증언취회

국유단은 원주, 흥천, 횡성 지역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80명을 초청하여 유해매장 지역에 대한 증언을 취회했으며, 참전용사의 생생한 증언은 영상으로 제작하고 문서로 기록되어 마지막 한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13.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발대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제 1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서포터즈 28명을 선정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5.18. 故 양만승 경위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영광 삼학리에서 적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한 故 양만승 경위는 113번째로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5.25. 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및 보건소, 행정기관 초청 사업설명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6.6. 제 61회 현충일 추념행사 - 유가족 찾기 행사

국립서울현충원에 현충일 추념행사 간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전용사 증언청취 등을 진행했다.



6.24.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유해발굴현장 견학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유해발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6.27. 전반기 합동안장식

육군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故 김동희 하사, 故 이상호 하사 합동안장식을 진행했다.



8.22. 국회 사진유품 전시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UFG 연습 기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사진·유품 전시회'를 진행했다.(국회의장-사진 중앙)



8.24. 후반기 유해발굴 출정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후반기 유해발굴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진행했다.



9. 9.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서포터즈 홍보 역량 강화 및 하반기 홍보 활동을 토의하기 위해 하계 워크숍을 진행했다.



9. 22. 철원 유해발굴현장

국유단과 육군 7사단 장병들이 철원 비무장지대 810고지에서 발굴된 호국영웅의 유해를 임시 봉안소로 봉송하고 있다.



9. 28. 광주 전남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및 보건소 행정기관 초청 사업설명회, 참전용사 증언청취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광주·전남 지역 참전용사와 6·25 전사자 유가족과 행정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10. 28. 한·미 공동감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관들과 美 DPAA 감식관들은 미군 전투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공동감식을 진행했다.



12. 2. 합동봉안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발굴한 2016년 6·25 전사자 500여 명의 합동봉안식이 2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됐다.



그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여, 유해발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홍보대사와 서포터즈를 선발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

발굴현장 견학

서경덕 교수와 함께한 ‘발굴현장 견학’은 호국 영웅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애도(哀悼)와 국군전사자 유해발굴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네티즌분들의 요청으로 특별히 마련된 행사입니다.

발굴현장 견학은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약 200여 명이 신청할 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50명은 이날 행사에서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국군전사자의 소중한 유해와 유품을 보고 느끼며, 조국의 소중함과 안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프로젝트 영상제작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산야에 묻혀 계신 호국용사분들을 한시라도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서경덕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총 2편의 영상제작에는 응답하라 1988의 주역 ‘헤리’씨와 태양의 후예 서상사 ‘진구’씨가 나레이션으로 참여해 뜻깊은 사업에 동참해주었습니다.



1 서경덕 교수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위촉식 2 서경덕 교수와 함께한 ‘발굴현장 견학’ 3 진구와 함께한 프로젝트 영상제작 4 헤리와 함께한 프로젝트 영상제작



- ⑤ 서포터즈 발대식 단체사진
- ⑥ 서포터즈 발대식
- ⑦ 유해 발굴현장 견학
- ⑧ 유해 발굴현장 견학


영상은 6·25 전쟁의 참상과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어 전장에서 함께 싸워준 UN연합군 21개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50개국의 한인회 홈페이지와 한인 커뮤니티 등에도 게재하여 재외동포와 한인 유학생들에게도 유해발굴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학생 서포터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홍보대사 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후손과 ROTC, 학사장교, 국유단 전역장병, 발굴·감식병 지원 희망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8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했습

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8개월간 유해발굴사업 공식행사 취재와 홍보 콘텐츠를 작성해 국민과 소통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더불어 유해발굴감식사업 대국민 홍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전사자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홍보대사 서경덕 교수님과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단 한 건의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포부를 가지고 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영웅 분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과 탐사관의 하루

전문탐사관 | 김찬수

어느덧, 유해소재 탐사관으로서 활동한지 4년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6시에 숙소에서 일어나 탐사지역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탐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탐사지역은 10km가 넘는 산악지역으로 김밥 한 줄과 식수통 3병을 준비해 산악지형을 따라 오르고 내려오는 일을 반복합니다.


민통선지역을 탐사할 때는 보통 GPS가 잘 작동하지 않아 지도와 주변 지형 그리고 오감을 믿고 탐사활동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녁쿨은 키보다 훨씬 높아, 왔다 갔다 하기를 여러 번... 쏟아지는 비는 조금씩 강해지는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리고, 안경도 부서지길 수차례... 얼굴과 몸에 흐르는 피를 혼자 힘으로 지혈하는 응급조치는 필수입니다.

바위 위에 털썩 주저앉아 다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며, 옷에 묻은 송충이 벌레 한 마리를 털어내고, 몸 안에 들어간 벌레들을 손으로 제거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빗물에 계곡물이 범람



하면 구멍줄 한 가닥으로 계곡을 건너다 흙탕물을 먹고 토해내는 일도 경험합니다.

유해소재 탐사관이란 때론,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찾은 개인호에서 호국영령을 찾았을 때를 생각하면 힘이 절로 솟아 납니다. “나는 탐사관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일을 하며, 오늘도 호국영령을 찾아 산을 오를 것입니다.” 



유해발굴 팀장이 말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유해발굴 작전’

발굴 5팀장 | 상사 **이주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팀이 발굴하는 지역은 6·25 전쟁 당시 격전지로서 매우 높은 고지로 이루어진 산악 지역입니다.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지역은 설악산 저항령이라는 발굴지입니다. 이곳은 1,500m 고지에 달하는 험준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발굴지역에 오전 10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조기 기상을 하여 약 5시간 이상을 등반해야 발굴 지역에 도착합니다.

일일 발굴 작전은 15시 이전에 끝내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도 변화무쌍한데, 산 아래에서는 햇볕이 쨍쨍한 맑은 날로 보였지만 막상 저항령 너덜바위가 시작되는 부근에 도착하면 구름이 걸려있고 매일 안개비가 뿌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저항령은 위험요소가 많아 일반 국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굴지역은 60여 년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항령 정상의 모습은 전쟁의 처참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저항령에 도착하자마자, 바위 사이에 햇빛에 노출되어 백골의 모습으로 가족의 품을 기다리시고 계신 호국용사님들을 뵈 수 있었습니다.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모시고 내려왔을 때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산야에 쓸쓸히 묻혀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 생각을 하니 보람차고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악산 저항령 유해발굴 작전은 발굴 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고취되고 유해발굴감식단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영웅의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유가족관리과의 탐문관들은
오늘도 길을 나서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꼭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더 DNA 시료채취했으면’

유가족관리과는 6·25 전사자 신원확인과 유가족 찾기 탐문활동 그리고 유전자 시료채취 관리 및 자료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관리과의 탐문관들은 한 분이라도 유가족을 더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신원확인을 위한 탐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적관리 기록을 셀 수 없이 뒤지고, 한 분이라도 더 DNA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느라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보다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가족과 단 며칠 떨어져 있어도 그리움이 생기는데, 지난 6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족을 찾고 있는 유가족의 그리움을 생각하면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지만 합니다.

그동안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병무청,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쉽게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올해는 유가족 3,830명의 DNA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66 호국의 영웅을 찾기 바라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듣기 위해
서울과 광주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99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부터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유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호국의 영웅을 찾기 바라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듣기 위해 서울과 광주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가 두 차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전국을 누볐습니다. 호국의 영웅을 한 분이라도 더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팔도를 찾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호국의 영웅

9,550여 위(2016년 500여 위)를 조국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모신 9,550여 위의 영웅.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원이 확인되어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족의 품에 안긴 6·25 전사자는 118명.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한발 더 뛰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① 2016년 5월 25일, 서울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사업설명회

② 2016년 9월 28일, 광주 전남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초청 사업설명회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영웅



오늘도 유가족들은 아픈 기억 속에 가족을 한 없이 기다립니다. 발굴 과정을 통해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일은 국방부 유해발굴단원으로서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올해 4월,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북한 지역에 남겨진 국군 전사자 유해 15위가 신원이 확인되어, 북한 → 판문점 → 하와이 → 서울까지 총 17,000km의 머나먼 여정을 거쳐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날은 국군 전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웠던 미군 유해 2위도 상호 봉환하는 ‘한·미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행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어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조국에 돌아온 호국의 영웅들을 보면 벅차오르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양구와 홍천, 경북 칠곡 등 83개 지역에서 연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6·25 전사자 유해 589위를 발굴했습니다. 이 중 501위는 국군 전사자로 확인되어 **합동 봉안식**을 진행했고, 호국의 영웅들은 중앙감식소(유해보관실)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국의 영웅들은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 DNA와 비교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 후 가족의 품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DNA 시료채취의 참여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호국용사는 118분에 불과합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 빨리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먼 이국땅에서 통한의 세월을 살았지만 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 바치리..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다

35년의 지독하고 가나긴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이품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덧붙이 부족한 광복의 감격도 잠시...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 대립으로 혼탁한 시국에 국방경비대 대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중국 길림성에서 한걸음에 우리나라로 건너온 24세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군산에 계시는 사촌 형님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서 온지 2년 만에
 그렇게 갈망하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수도사단에 배치된 젊은 청년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진천-청주 전투에 참전해 전사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젊은 청년은 65년이 지나서야 유해로 발굴되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품이라곤 전투화 밑창 2점과 전투복에 달려있던 단추만 남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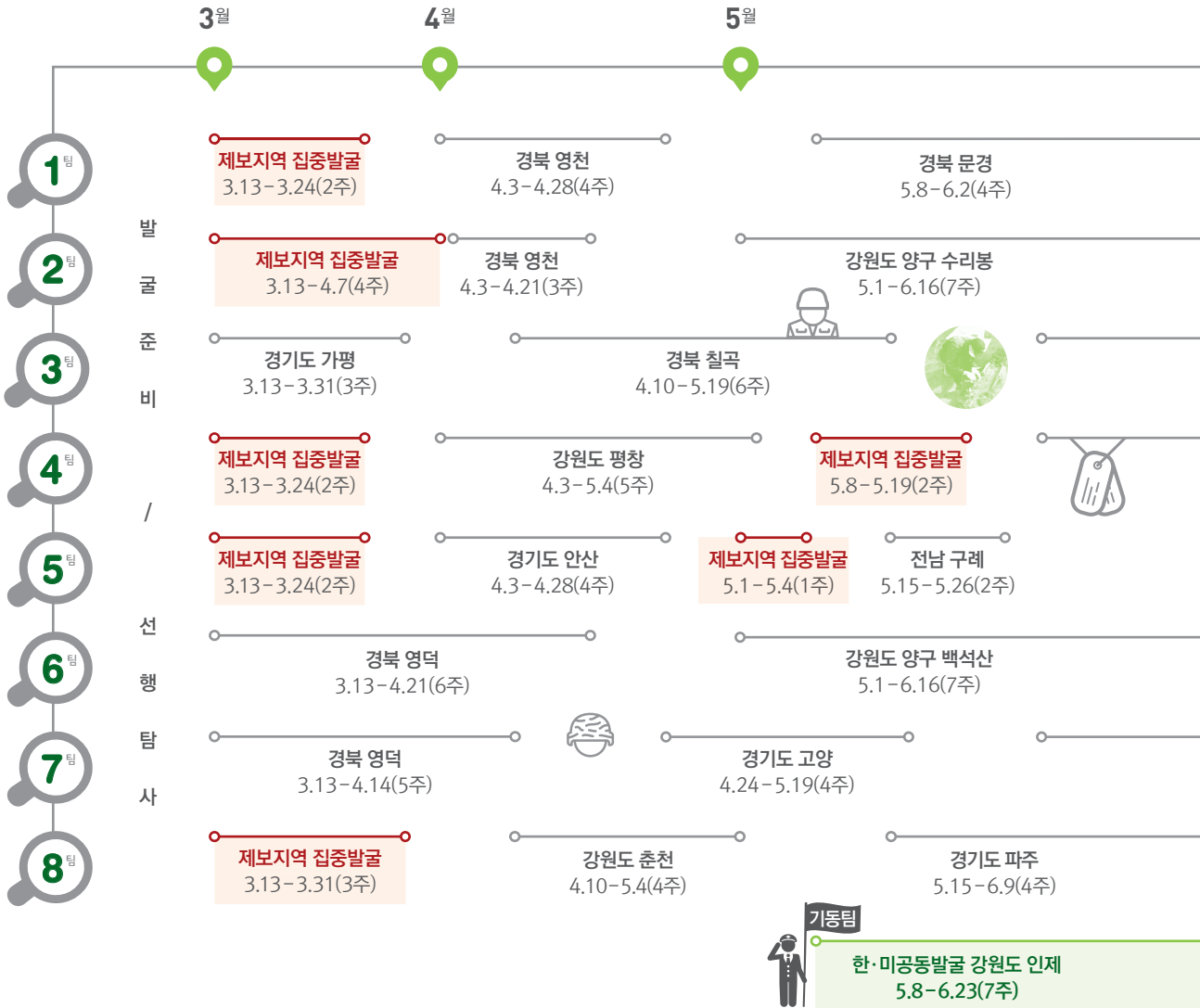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참고자료〉 故 정만대 일병 관련 자료

출생지 : 경기도 연백군 송봉면(유년시절 생활 장소) | 중국 길림성으로 부모님이 이주함에 따라 중국에서 생활
 1946년 전북 군산에 4촌 형님을 만나기 위해 혼자 한국으로 오ム 1948년 6월 국방경비대에 입대(수도사단에 배치)
 1950년 7월 진천-청주 전투에 참전 2015년 11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봉화산 411고지에서 유해 발굴
 2016년 9월 전북 군산 유가족에게 신원확인 통보(유전자 일치) 2016년 12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

2017년 유해발굴감식단 발굴계획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10주년 기념 특별전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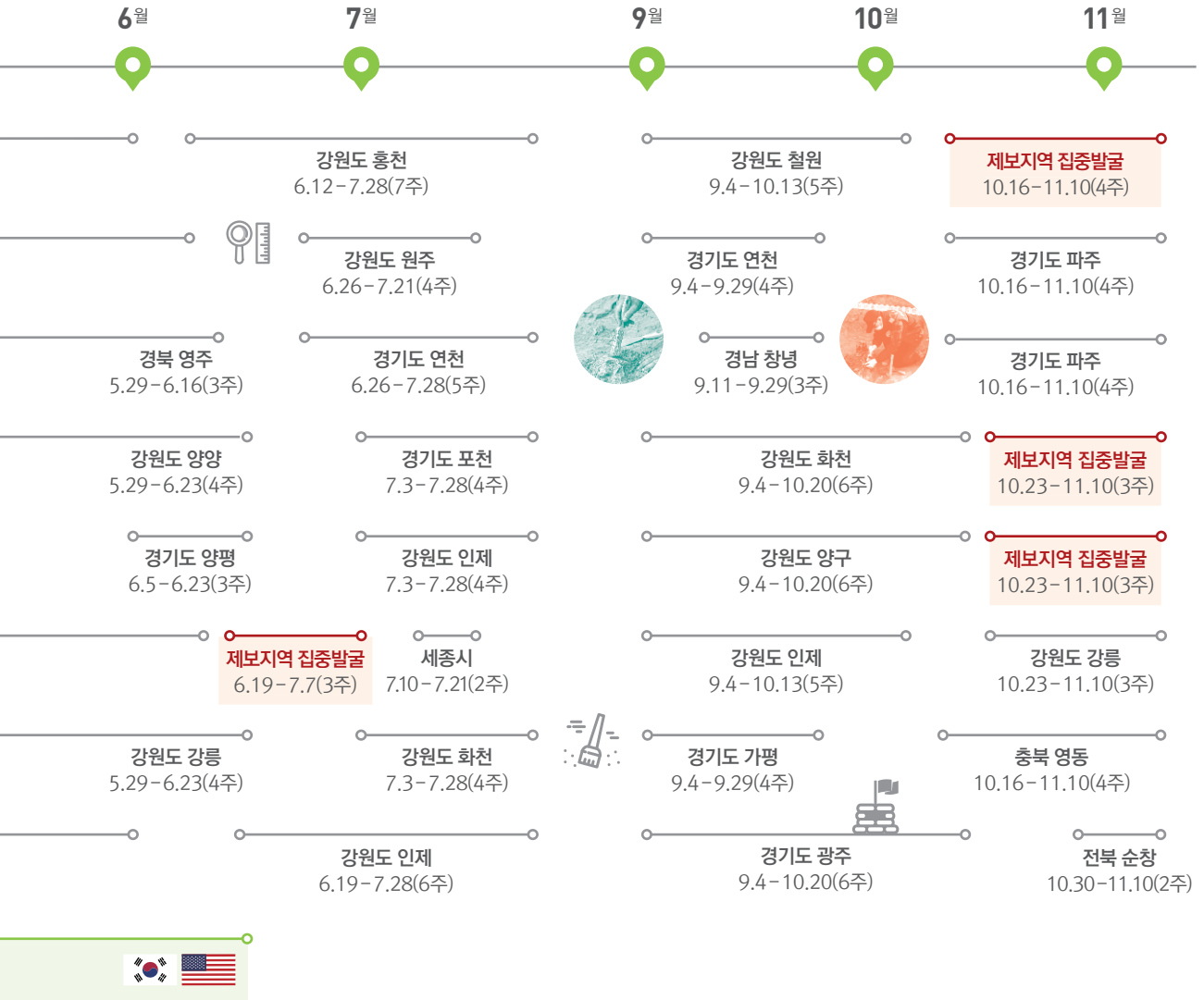


2017년도에는 단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유해소재 제보 및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대국민 나라사랑의식 고취를 위한 이번 특별 전시회는 유해소재 조사·탐사 → 발굴 → 감식 → 신원확인 등 유해발굴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유가족 및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17년 4월 중순 ~ 6월 중순

장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광화문(세종대로)에 위치

※ 부대운용에 따라 발굴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6·25 전자사
유가족 초청 사업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



❶ 6·25 전자사 유가족 및 보건소, 행정기관 초청 사업 설명회(2회)

5월 대구 / 9월 수원

※ 호국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 모신다는 국가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자리

❷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3회)

3월 울산 / 5월 대구 / 9월 수원

※ 6·25 전쟁 당시 전투현장에 남겨둔 전우의 유해소재에 대한 증언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녹취 후 문서로 기록하는 사업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 주세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목격 또는 들은 사실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제보해주세요!
(제보전화 1577-5625)

유해 발굴시 포상금 지급 (최대 70만원)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부대 방문 시료 채취

무료 건강검진 제공

전화신청시(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 발송

현역장병은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위로휴가 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AKRI)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문의전화 **1577-5625** (오! 6·25)